

- **주요 뉴스:** 미국 정부, 수정 예산안 하원 통과로 섀다운 우려 완화. 상원 표결 예정
 - 미국 11월 근원 PCE 물가, 예상치 하회, 금리인하 부담 다소 완화
 - 트럼프, 유럽연합이 미국산 원유 구입을 늘리지 않을시 보복관세 부과
 - 미국 아마존, 스타벅스 등 크리스마스 앞두고 파업
- **국제금융시장:**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와 개인소비 확대 등이 영향
 - 주가 상승[+1.1%], 달러화 약세[-0.6%],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IT, 부동산 섹터 등이 강세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우려 등으로 약세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7%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정부의 섀다운 가능성 등을 반영
독일은 경기둔화 우려 지속 등으로 2bp 하락

※ 뉴욕 1M NDF 종가 1443.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5.2원, 0.23% 하락). 한국 CDS 포함

		12/20일	12/19일	전일대비			12/20일	12/1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930.9	5,867.1	+1.09%	국채 금리 10y	미국	4.52%	4.56%	+4bp
	유럽	502.19	506.66	-0.88%		독일	2.29%	2.31%	-2bp
	중국	3,368.1	3,370.0	-0.06%		영국	4.51%	4.58%	-7bp
	일본	38,702	38,814	-0.29%	CDS 5y	한국	37bp	37bp	+0bp
	한국	2,404.2	2,435.9	-1.30%		중국	64bp	66bp	-2bp
환율	달러지수	107.82	108.42	-0.55%	위험 지표	EMBI+	-	367	-
	유로화	1.0430	1.0363	+0.65%		VIX	18.36	24.09	-23.79%
	엔화	156.31	157.44	+0.72%		WII유	69.46	69.91	-0.64%
	위안화	7.2954	7.2958	+0.01%	원자재	구리	404.1	402.1	+0.51%
	원화	1,448.5	1,447.3	-0.08%		금	2,622.9	2,594.0	+1.1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정부, 수정 예산안 하원 통과로 섰다운 우려 완화. 상원 표결 예정

- 미국 공화당이 부채한도 폐지 내용을 삭제한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고 하원에서 이를 통과시키면서 섰다운 우려가 완화. 다만, 상원 통과도 필요하여 불확실성 상존. 2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부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으로 전환되고 공항 운영 등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 앞서 공화당이 제안한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연방정부 업무정지(섰다운) 우려가 커지던 상황. 기존 예산안 표결은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되었으며 공화당 하원 중에서도 38명이 반대표를 행사
- 기존 예산안은 부채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를 반영하고, 3개월의 임시 예산안 편성, \$1천억 재난 지원금, \$100억의 농민 지원 예산 등을 포함. 앞서 트럼프는 섰다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바이든의 책임이라고 비난
- Goldman Sachs는 만약 섰다운이 발생하더라도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이 경우 매주 경제 성장률이 0.15%p 감소될 수 있다고 우려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1월 근원 PCE 물가, 예상치 하회, 금리인하 부담 다소 완화

-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의 월간 상승률이 0.1%로 전월(0.3%) 및 예상치(0.2%)를 하회. 연간 상승률은 2.8%로 전월과 동일하나 예상치(2.9%)를 하회. 전체 PCE 물가도 전월비 0.1% 상승하면서 전월 및 예상치(0.2%) 대비 낮은 수준. 상품물가는 전월비 0.4% 하락한 반면, 서비스 물가는 0.2% 상승
- 개인 소득 증가율은 0.3%로 전월(0.7%)을 대비 낮았으나, 개인 지출 증가율은 0.4%로 전월(0.3%) 대비 다소 확대
- Morgan Stanley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완만하면서 12월 FOMC의 매파적 기조에 대한 부담도 다소 완화되었다고 분석. 다만, Inflation Insights는 금리 인하를 위해 추가적인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설명. CME의 FedWatch는 내년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7%, 내년 3월 인하 가능성은 55.3%로 집계

■ 트럼프, 유럽연합이 미국산 원유 구입을 늘리지 않을 시 보복관세 부과

-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EU가 미국의 원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입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럽산 자동차, 기계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언급. 한편, 유럽 위원회는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트럼프와 논의될 준비가 있다면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언급

■ 미국 아마존, 스타벅스 등 크리스마스 앞두고 파업

- 아마존의 일부 창고 근로자들이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7개 지역에서 파업을 시작하고 임금 인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 다만, 금번 시위 참가자는 전체 직원 중 소수에 불과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물류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
- 스타벅스 노조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지역에서 5일간 파업을 시행했으며 연말까지 수백개 매장의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

■ 폭스바겐, 2030년까지 직원 3.5만명 감축안에 합의

- 폭스바겐이 직원 3만5000명을 줄이기로 노조와 합의하고 임금 10% 삭감 요구안을 철회하기로 결정. 폭스바겐은 금번 합의로 연간 150억유로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일부 생산시설은 멕시코로 이전하겠다고 설명

■ 중국 기준금리 동결, 내년 추가 인하 기대

-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물 대출우대금리를 3.1%, 5년물 금리를 3.6%로 동결. 최근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에 채권금리의 과도한 하락 위험을 지적했으나, 주요 기관들은 내년에도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

■ 미국 금융당국, 결제 플랫폼 Zelle 관련 사기로 BoA 등 은행에 소송 제기

-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결제 플랫폼 Zelle에서 광범위한 송금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Bank of America, JPMorgan, Wells Fargo가 소비자 보호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고소. Zelle은 BoA 등 7개 은행이 소유한 결제 네트워크로 1.4억명이 넘는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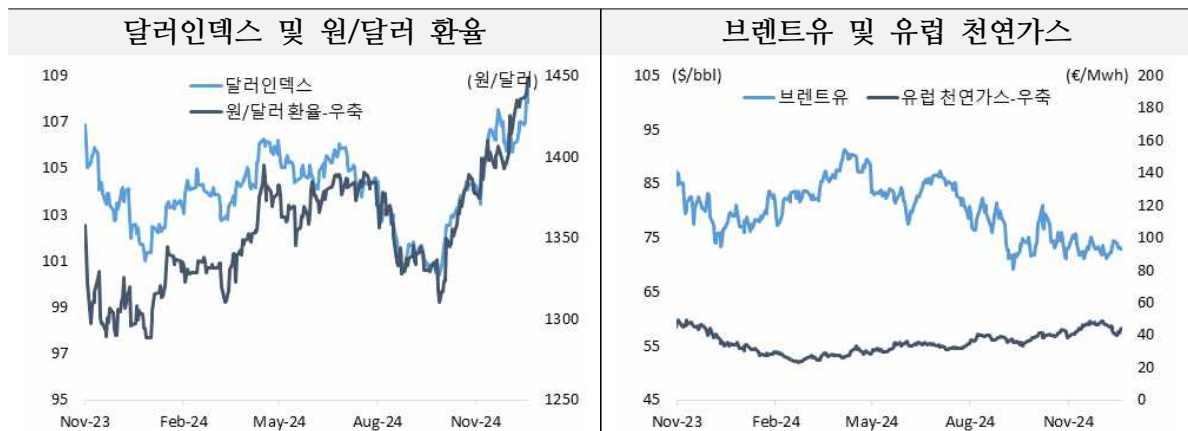
■ 미국,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패키지 마련 중

- Reuters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추가 무기 구입을 위해 약 \$12억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 중이며, 수일 내에 이를 발표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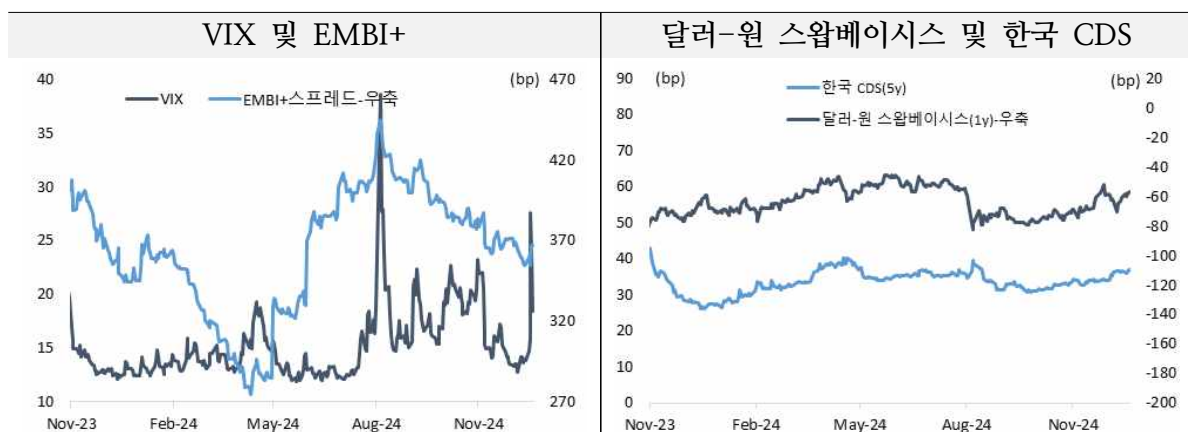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31, E-mail jgbaek@kcif.or.kr